

# 로봇착유 시대 열려...

## 경기 화성의 또나따 목장, 국내 최초 로봇착유기 설치

### 한국낙농, 로봇착유기 시대 도래

그디어 우리 대한민국 낙농에도 로봇착유 시대가 열렸다. 국내 첫 로봇착유 목장은 경기도 화성시 마도면에 위치한 또나따 목장(목장주 양의주)이다. 지난 3월 21일 로봇착유기 2대가 또나따 목장에 도착하여 4월 27일부터 가동을 시작했다. 현재까지는 젖소의 적응기로 20두를 별도로 지정, 로봇착유기 군으로 정하여 로봇착유기에 적응토록 하고 있다.

로봇 착유기의 등장으로 3D업종으로 분류된 낙농산업에도 새로운 활로가 모색될 전망이다. 하루에 두 번씩 365일 착유를 해야 하는 현실에서 조금이나마 여유를 찾을 수 있게 된다는 것에 낙농가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음이다.

로봇착유기는 착유 노동력을 대폭 절감시키며, 하루 2회 착유에서 3회 착유로 두당 약 10%의 유량증가가 발생되며, 착유 대기시간 감소로 스트레스를 감소시킬 수 있다는 기본적인 장점 이외에도 각 개체별 유량 및 유질 등의 데이터가 하루 24시간 누적되어 개체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수 있어 보다 개체별관리가 손쉽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각 개체별 데이터베이스 구축으로 개체별 유량과 유질은 물론 유방염 여부, 혈유, 체세포, 발정여부 등을 쉽게 구분·관리할 수 있으며, 이상이 있는 우유는 자동으로 구분 집유할 수 있게 만들어졌다.

또나따 목장에 설치된 로봇착유기는 네덜란드 렐리사의 아스트로넛A3라는 신제품으로 동조물산(대표 이용구)이 독점으로 국내에 수입·공급하고 있다. 아스트로넛A3는 전세계에 3,000여 대가 넘게 보급되어 일반화, 대중화 추세로 접어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아스트로넛A3는 사람이 아닌 소에 맞춘 착유 개념으로부터 시작된다. 아스트로넛 착유시스템은 소 스스로가 언제 착유를 할 것인지, 언제 사료를 섭취할 것인지를 소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준다. 따라서 스트레스의 최소화로 인한 가축의 복지를 향상으로 생산성 증가 및 고품질 우유생산과 질병발생의 최소화로 경영에 있어 새로운 활로를 모색할 수 있게 만든다. 🐄

(취재 : 이세연)



1, 2. 로봇착유 장면 3. 송아지 자동급이기



국내 최초로 로봇착유기를 설치한 도나따 목장의 양의주 목장주를 만나 간단하게 인터뷰를 해보았다.

### 로봇착유기를 설치하게 된 배경 있다면

로봇착유기를 설치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노동력 절감에 있었다. 가족 노동력으로는 착유에 있어 한계가 있었으며, 하루 365일 하루도 쉬없이 일해야 하는 현실에서 약간의 일탈(?)을 꿈꾸고 싶었다. 또한 로봇착유기는 소의 생리에도 좋을 것이라 생각했다. 사람이 아닌 소 위주로 시스템이 바뀔 수 있어 가족 복지 차원에서도 좋을 것 같았다.

### 설치 후 달라진 점이 있다면

어머님이 잠을 좀 더 잘 수 있다고 가장 좋아하시는 것 같다. 설치한지 얼마 안돼 아직까지는 적응기라 뭐라 말할 수는 없지만 약간의 여유를 즐길 수 있을 만큼은 노동력이 많이 절감된 것 같다. 앞으로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 봐야 알 수 있을 것 같다.

### 고장에 대한 두려움은

우리 목장에 설치한 릴리사의 아스트로넛A3라는 착유기가 전 세계에 3,000대를 넘어 4,000대가 가까이 보급되어 있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을 것이다. A/S에 문제가 있었다면 이렇게까지 보급이 되지 않았을 것이다. 릴리사는 'A/S구비 조건이 갖추어지지 않으면 제품을 공급하지 않는다.' 것이 원칙이라고 말한다. 안정화될 때까지 본사 및 동조물산 직원이 목장에 상주하며 관리하고 있어 A/S에 대한 불만은 가지고 있지 않으며 걱정도 크게 하고 있지 않다.

### 앞으로의 계획이 있다면

소들이 깨끗한 환경에서 편안하게 스트레스 없이 쉴 수 있는 공간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접근하고 싶다. 이것이 바로 친환경 축산이라 생각한다. 그래서 좀 더 편안하고 깨끗한 환경을 조성키 위해 새로운 축사를 신축하고 있다. 새로운 축사는 환기나 지붕 개폐가 가능하게 하여 환기가 용이하고 분노가 가능한 빨리 자연 건조될 수 있게 만들 예정이다. 여기에 로봇착유가 더해진다고 생각하며 새로운 개념의 낙농이 탄생될 것이라 생각하며 보다 더 나은 고품질 우유를 생산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이러한 고품질 우유를 생산하여 국민건강증진에 조금이나마 일조할 수 있다면 좋겠다.